

박기범 사회복지사

죽전재활원

클라이언트와 함께 하는 나의 사회복지 삶

1 우선 칭찬 릴레이 사회복지사로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간단한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 저를 칭찬해주신 박준희 사회복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보다 칭찬을 받으셔야 하는 사회복지사님들이 많은데 조금 부끄럽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2 지금 현재 죽전직업재활원에서 직업훈련교사로 근무하고 계신데요, 이 분야에서 일하시게 된 동기와 그동안 일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어렸을 때부터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외국의 장애인들과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삶을 비교하는 프로그램이 많았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나중에 내가 장

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일을 한지 2년 정도 되어 가고 장애인들에게 맞는 직장을 찾아 취업을 시켜 드리고 있는데, 이분들이 갈 수 있는 취업처가 적어서 걱정입니다.

3 대학시절부터 사회복지 활동에 상당히 적극적이셨고, 졸업 후에도 미인가시설에서 일하시는 등 많은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당시 이야기와 가장 기억에 남는 일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작은사랑이라는 광주·전남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 환자 돕기 단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1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근무하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제 가슴속에 지금도 남아 있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한 아이는 지금 어엿한 고등학생이 되어 있

고, 한 아이는 이 세상을 밝히고 있는 별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필요하지만 제가 이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은 같이 놀아주고 혈소판을 조금 나눠주는 정도였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밝히는 별이 된 친구는 당시 6살이었는데 제가 병원에 들어가면 항상 저를 기쁘게 반겨주는 친구였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인데도 제가 가면 일어나서 삼촌 안병하던 친구인데, 제가 휴일에 시골집에 일이 있어 갔다 오는 날 버스에서 내렸는데 맞은편 차선에서 엠브런스 한 대가 올라가더군요. 다른 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텐데 그날은 엠브런스가 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눈을 땔 수가 없었습니다. 엠브런스가 사라진 뒤 병원에 갔는데 우리 친구가 간밤에 잤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조금 전에 엠브런스 타고 집으로 갔다는 겁니다. 제가 눈을 땔 수 없었던 그 엠브런스가 우리 친구가 탄 엠브런스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 친구가 가끔 생각이 나고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등학생이 된 친구는 건강을 되찾아 퇴원을 하고 통원치료를 받는데 어느날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친구가 어머니를 막더군요. 그래도 어머니는 말씀을 하셔야겠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원래 머리카락이 직모였는데 건강을 되찾으면서 자꾸 머리가 쫘늘거리더라고요.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 저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제 혈소판을 수혈하니 자기 머리카락도 변한다고 하면서 삼촌한테 책임지라고 해야겠다고 이야기 하더군요. 그때 주위에 있던 다른 가족들도 삼촌이 책임져야 된다고 하며 웃는데 너무나 행복하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있기에 제가 사회복지사를 하는 보람이 생기고 끝까지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4 사회복지예산 중 장애인분야에 대한 지원은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편이나 실질적 현실은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지금 근무하고 계신 재활원이나 타 장애인 기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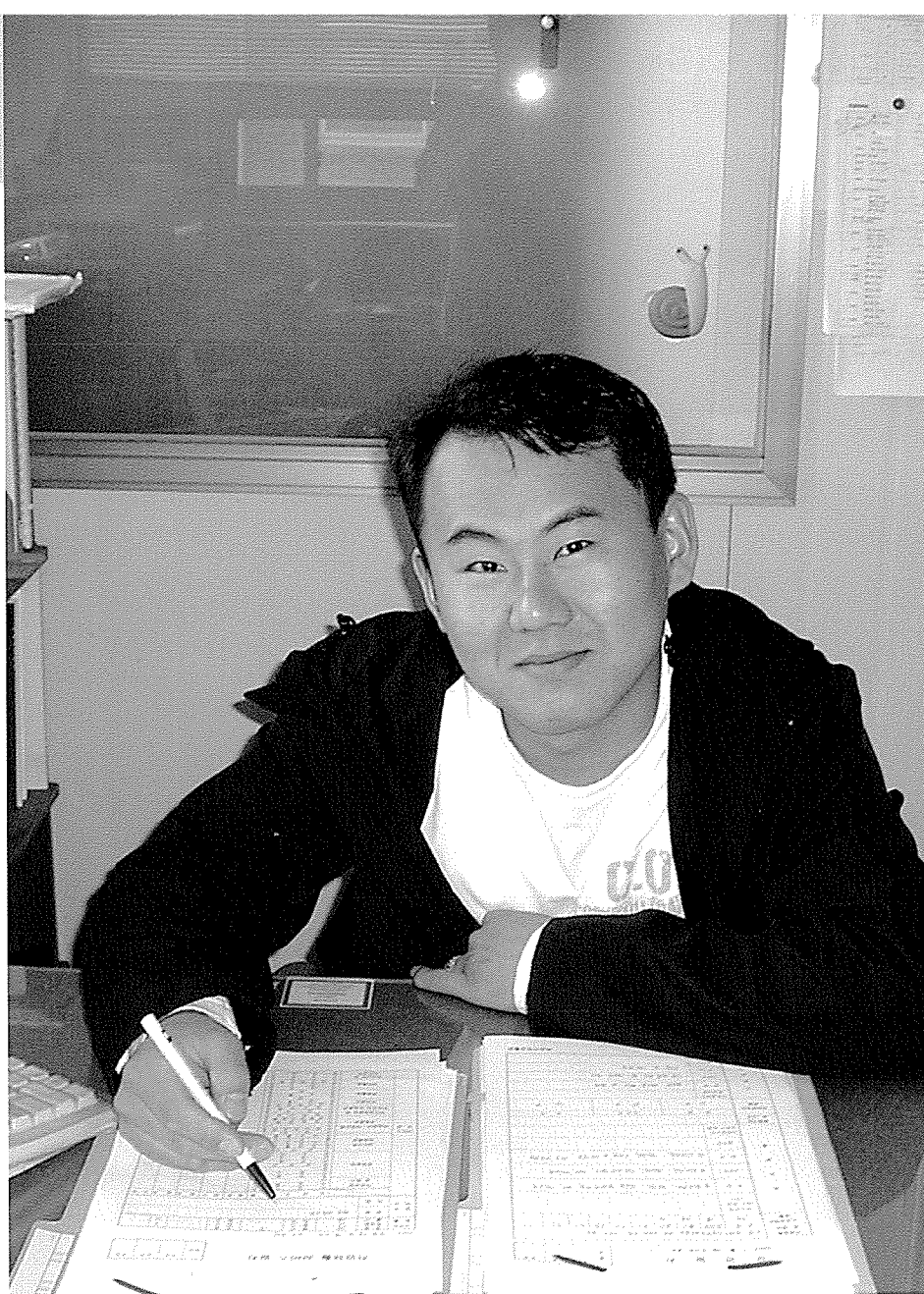
▶ 직업재활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분들이 많이 느끼는 문제일겁니다. 종종 정신지체 장애인분들을 2년동안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사회에 내보낼까라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경중이신 분들은 2년이내에 많이 취직을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중중이신분들은 취업전 적응훈련기간에 많이 탈락이 되어 돌아오시는데요. 그 이유는 2년이라는 기간동안 교육을 받더라도 현장중심의 교육이 아닌 기관운영에 맞는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막상 현장에 나가게 되면 문제행동을 다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그 일에 맞는 취업처를 찾아 교육하고 이러한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 지원 및 기업의 인식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관을 운영하는 운영주체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사회복지사로서 그리고 사회복지를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은? 그리고 앞으로 개인적으로 꼭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 제가 사회복지를 하는 이유는 저를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가 있기 때문이고 클라이언트가 없다면 제가 사회복지를 할 수 없을 겁니다.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서비스



를 제공해주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라고 생각기에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6 다음 칭찬사회복지사를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아산시보건소 정신보건센터 자활사업담당 김민경 사회복지사를 추천합니다. 이 친구는 사회복지를 하기 위해 다니던 학교를 포기하고 사회복지학과에 편입을 하였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늦게 사회복지

를 시작해서인지 남들보다 열심히 활동을 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정연이라는 사회복지정보연합활동을 하였고 대학졸업후 사람들이 힘들어서 포기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주는 사업인데 참여자들의 반응도 느끼고 힘든 일이지만 언제나 웃는 얼굴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라면 좋은 사회복지사의 모범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추천합니다. 